

디지털 오디오 워터마킹 기술의 최신동향 및 개발

석종원, 홍진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부

Recent Trend and Development of Digital Audio Watermarking Technology

Jong Won Seok, Jin Woo Hong
Broadcasting Media Technology Department, ETRI

요약

최근 들어 디지털 워터마킹(watermarking) 기법이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끌고있는 디지털 오디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워터마킹에 대한 최신동향 및 개발된 워터마킹 기술을 소개한다. 개발된 오디오 워터마킹 기술은 원본 오디오에 비해 오디오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워터마크를 제거하고자 가해지는 다양한 공격에도 워터마크가 제거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I. 서론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망과 컴퓨터 이용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문서, 음성, 오디오, 영상,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이용 및 보급이 일반화 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은 디지털이라는 속성으로 인하여 복사를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원본이 만들어지게 되므로 누구나 손쉽게 불법적인 복제를 통해서 이들 디지털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 보호기법은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방법으로 암호를 알지 못하면 데이터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단 암호가 해독된 데이터는 아무런 제재 없이 불법적으로 복사되고 배포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최근에 디지털 워터마킹 기법이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있으며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DVD (Digital Versatile Disc) Forum, SDMI (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 등에서 표준화 기법을 규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5].

현재까지 발표된 워터마크 알고리즘의 대다수는 영

상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고, 오디오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MP3 오디오 파일의 불법복제 등을 생각해 볼 때 오디오 데이터의 워터마킹 기법 역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한 오디오 워터마킹 방법은 다음과 같다.

Bender[6] 등은 스프레드 스펙트럼, 에코우, 그리고 위상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의 3가지 방식의 오디오 워터마킹 방법을 제안 하였다.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은 저작권 정보를 PN 시퀀스를 이용하여 확산 시킨 후 이에 적절한 가중치를 두어 원본 오디오 신호에 더해 주는 방식이다. 에코우 방식은 청각적으로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지연과 크기를 가지는 에코우를 오디오 신호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삽입 시, 삽입되는 0과 1의 정보는 각각의 지연정도를 다르게 하여 삽입 하였다. 검출 시에는 자기상관 함수나 캡스트럼을 이용하여 지연된 위치에서의 피크를 찾아내어 삽입된 정보가 1인지 0인지를 판별하게 된다. 위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청각적 특성이 위상성분에 덜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상성분에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여 주는 방법이다. Solana Technology [7]에서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과 선형예측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공격에 상당히 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워터마크가 삽입된 오디오의 음질을 떨어뜨리

지 않게 하기 위해 심리음향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어 대부분의 오디오 워터마킹 방식들에 사용되고 있다[8-10].

본 논문에서는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끌고있는 심리음향모델링을 이용한 디지털 오디오 워터마킹에 대한 최신동향 및 개발된 오디오 워터마킹 기술을 소개한다. 개발된 오디오 워터마킹 기술은 원본 오디오에 비해 오디오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워터마크를 제거하고자 가해지는 다양한 공격에도 워터마크가 제거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II. 오디오 워터마킹 기술동향

(1) Swanson 방법[8]

이 방법은 MPEG-1의 심리음향모델(I) 및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을 사용하며, 저작권 정보를 포함하게 되는 템플레이트로서 PN (Pseudo-noise) 시퀀스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PN 시퀀스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에서 정보신호를 변조하여 확산시키는데 사용되며 잡음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특히, 간섭에 매우 강한 성질을 가지며 자기상관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N 시퀀스의 발생방법은 미리 정의된 길이의 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를 이용하여 만들게 된다. 이때 PN 시퀀스의 길이는 shift register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만일 shift register의 수가 m 이라면 최대 2^m-1 의 주기를 갖는 PN 시퀀스를 얻게 되며 2^m-1 개의 PN 시퀀스 중 하나를 워터마크 신호를 발생시키는 템플레이트로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shift register의 상태값이 템플레이트 PN 시퀀스를 발생시키는 키(Key)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삽입될 저작권 정보는 특정 키 값을 이용해 발생된 PN 시퀀스와 곱하여 확산시킨 다음 마스킹 임계치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준 다음 원본 오디오 신호에 더해지게 된다. 자세한 삽입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MPEG-1의 심리음향모델(I)을 이용하여 프레임 단위의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마스킹 임계치를 구한다.
- 2) 오디오 프레임 길이와 동일한 PN 시퀀스 신호를 발생시킨다.
- 3) 발생된 PN 시퀀스와 비트 스트림 형태의 저작권 정보를 곱하여 확산시켜 저작권 정보를 은닉시킨다.
- 4) PN 시퀀스를 이용하여 확산된 저작권 정보는 FFT를 취하여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로 변환시킨다.
- 5) 1)번 과정에서 구해진 오디오 신호의 마스킹 임계치를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된 저작권 정보를 최대한 마스킹 임계치에 근접하도록 크기를 조절한다.

- 6) 마스킹 임계치에 근접하도록 크기가 조절된 저작권 정보에 Inverse FFT를 취하여 시간영역의 신호로 변환하여 최종적인 워터마크 신호를 얻어낸다.
- 7) 원본 오디오 신호와 6)번 과정을 통해 얻어진 워터마크 신호를 더하여 워터마크가 삽입된 오디오 신호를 얻는다.

그림 1은 Swanson이 제안한 방법을 이용한 오디오 워터마크 삽입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방식은 처음으로 오디오 워터마킹에 MPEG 오디오 부호화에 사용되는 심리음향모델을 이용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워터마크 검출 시 원본 오디오 신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2) Garcia 방법[9]

PN 시퀀스와 심리음향모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 방법의 워터마크 삽입과정은 Swanson의 방법과 거의 유사하다. 차이점은 심리음향모델 적용 시 Swanson의 방법은 MPEG-1의 심리음향모델(I)을 사용한 반면, 이 방법에서는 MPEG-1 layer3 또는 MPEG-2에서 사용하는 심리음향모델(II)를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이 방식의 최대 장점은 워터마크 추출 시 원본 오디오를 필요로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이 방식에서는 워터마크 추출 시 삽입 시와 동일하게 심리음향모델(II)을 이용하여 마스킹 문턱치 이하의 신호성분을 추출하여 여기에서 워터마크 정보를 추출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워터마크 추출과정이 복잡해지게 되고 이에 따른 계산량 역시 증가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워터마크 삽입 시 심리음향모델(II)을 사용하여 심리음향모델(I)보다는 정교한 마스킹 문턱치를 구할 수 는 있으나 계산량의 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2는 Garcia 방식에서 제안된 오디오 워터마크 추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3) 비트스트림 워터마킹 방법[10]

이 방식은 독일의 Fraunhofer 연구소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압축된 오디오 비트스트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오디오 신호를 부호화 한 후 압축된 오디오 비트스트림을 복호화하여 오디오 부호화 시 사용된 심리음향모델을 이용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다시 이를 부호화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오디오 압축과 동시에 워터마크 삽입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호화 및 복호화 과정의 첨가로 인한 계산량의 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방식에서는 이로 인한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워터마크가 삽입된 오디오를 다시 부호화 할 때 처음 부호화 시 사용된 스케일 팩터, 심리음향 모델, 및 양자화 스텝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그림 3은

비트스트림 오디오 워터마킹의 삽입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III. 제안된 방식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워터마킹 알고리즘들은 저작권 정보를 PN 시퀀스를 이용하여 변조시키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의 워터마킹 방식은 대부분의 공격에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검출실험 시 검출율 역시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을 이용하는 워터마킹 방법은 시간축 변형 공격에만은 상당히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즉, 속도 변화 (linear speed change), 스케일 변화 (pitch-invariant time-scaling change), Wow and Flutter 등의 시간 축 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공격이 가해지는 경우 검출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워터마크 검출 시 템플레이트로서 PN 시퀀스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시간 축 공격이 가해질 경우 오디오에 포함된 워터마크 신호와 템플레이트로서 사용되는 PN 시퀀스 사이의 동기가 맞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저작권 정보를 포함하게 되는 템플레이트로서 오디오 신호 자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PN 시퀀스를 사용하지 않고 변형된 형태의 오디오 신호를 워터마크로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원본 오디오에 변형을 가하여 워터마크로 사용 될 신호를 만든 다음 워터마크 신호에 약간의 지연 (Delay)을 주어 원본 오디오 신호에 더해지게 된다. 이때 지연되는 정도가 바로 키 값이 되는 것이다. 검출 시에는 단순히 자기상관함수나 캡스트럼을 취하여 키 값인 지연된 위치에서 피크 정보를 추출하여 저작권 정보를 얻어내게 된다. 삽입 과정에서 워터마크가 삽입된 오디오 신호의 음질을 떨어뜨리지 않게 심리음향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림 4는 제안된 방법을 이용한 오디오 워터마크 삽입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끌고있는 디지털 오디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워터마킹 기술의 최신 동향 및 개발된 알고리즘을 소개하였다. 기존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을 이용하는 워터마킹 방법이 시간 축 변형 공격에 상당히 취약한 단점을 가지는 것에 비해 제안된 방법은 변형된 형태의 원본 신호를 워터마크로 사용하여 시간 축 공격에도 워터마크가 살아

남을 수 있다. 또한, 개발된 오디오 워터마킹 방법은 심리음향모델을 이용하여 원본 오디오에 비해 오디오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마스킹 임계치를 이용하여 워터마크의 강도를 조절하여 워터마크를 제거하고자 가해지는 다양한 공격에도 워터마크가 제거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의 "디지털 오디오 방송기술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참고문헌

- [1] M. Swanson, M. Kobayashi, and A. Tewfik, "Multimedia data embedding and watermarking technologies," *Proceedings of IEEE*, Vol. 86, No. 6, pp. 1064-1087, June 1998.
- [2] C. Cox, J. Killian, T. Leighton and T. Shamoan, "Secure spread spectrum communication for multimedia", *Technical report, N.E.C. Research Institute*, 1995.
- [3] R. J. Anderson and F. Peticolas, "On the limit of steganography," *IEEE J. Select. Areas Commun.*, Vol. 16, pp. 474-481, May 1998.
- [4] M. Barni, F. Bartolini, V. Cappellini, and A. Piva, "A DCT-domain system for robust image watermarking," *Signal Processing*, Vol. 66, no. 3, pp. 357-372, May 1998.
- [5] F. Hartung and M. Kutter, "Multimedia watermarking techniques," *Proceedings of IEEE*, Vol. 86, No. 6, pp. 1079-1107, June 1998.
- [6] W. Bender, D. Gruhl, and N. Morimoto, "Techniques for data hiding," in *Proc. SPIE*, Vol. 2420, p. 40, San Jose, CA, Feb. 1995.
- [7] C. Lee, K. Moallemi, and R. Warren, "Method and apparatus for transporting auxiliary data in audio signals," U.S. Patent 5,822,360, Oct., 1998.
- [8] M. Swanson, B. Zhu, A. Tewfik, and L. Boney, "Robust audio watermarking using perceptual masking," *Signal Processing*, Vol 66, no. 3, pp. 337-355, May 1998.
- [9] Ricardo A. Garcia, "Digital Watermarking of Audio Signals Using a Psychoacoustic Auditory Model and Spread Spectrum Theory," In *107th AES Convention*, New York, Sep. 1999. preprint 5073.
- [10] Christian Neubauer and Jiirgen Herre, "Audio Watermarking of MPEG-2 AAC Bit Streams," In *108th AES Convention*, Paris, Feb. 2000. preprint 5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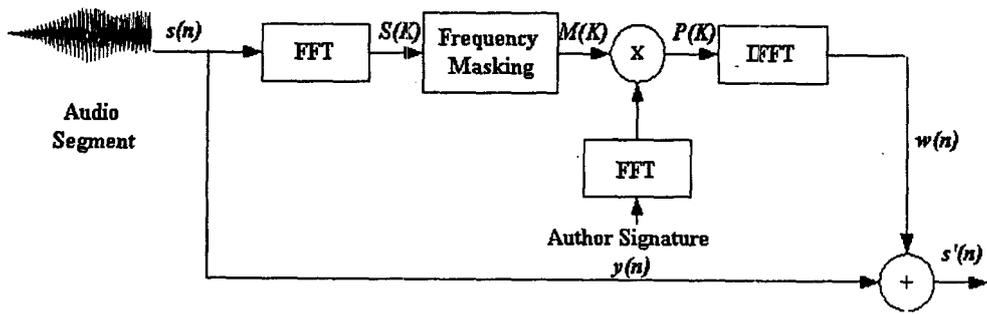


그림 1. Swanson 방식에서의 워터마크 삽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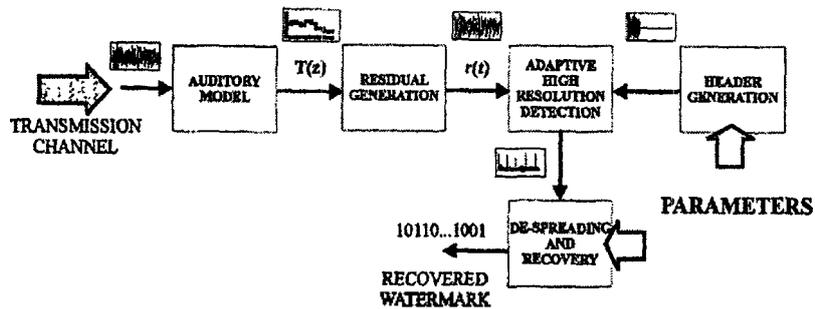


그림 2. Garcia 방식에서의 워터마크 추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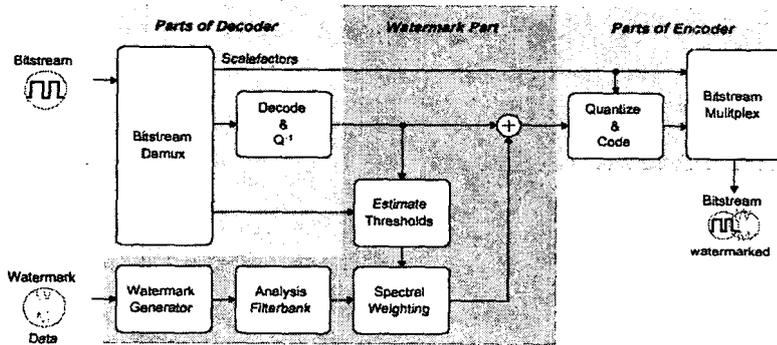


그림 3. 비트스트림 방식에서의 워터마크 삽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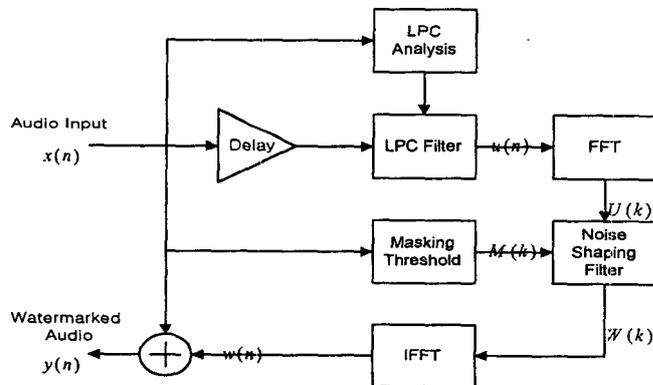


그림 4. 제안된 워터마크 삽입방법